6월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종철	팀장	서동순	☎	286-6420

‘남도장터’와 ‘11번가’ 손잡고 ‘감자농가 돕기’ 추진

- 보성 수미감자 3kg 4,480원, 5kg 5,360원 무료배송 -

전라남도가 11번가와 손잡고 외식 자제, 학교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농가 돕기를 위해 온라인 특판행사를 벌인다.

전남도는 최근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11번가(주)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감자농가 돕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www.jnmall.kr)와 ‘11번가’(www.11st.co.kr)에서 진행되며, 주로 쪄먹는 수미 감자를 시중가 대비 30~40% 할인된 가격 3kg 4,480원, 5kg 5,360원(무료배송)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1번가 ‘LIVE11’에서 6월 2일 11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되는데 방송시청 중 구매자에게는 추가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외식 감소와 학교급식 공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농가를 돕기 위해 11번가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특판행사를 통해 감자농가에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남 농특산물 판매에 고충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비 촉진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양파농가 돕기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에서 3억 4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에 도모했다. 또한, 과잉생산 및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한 민물장어 기획전을 남도장터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